

가벼우면서도 윤기가 있는 코듀로이

일본의 F 직물공장에서는 8 20수 단사로 제작되는 코듀로이(corduroy)가 주로 생산되고 있는데, 세번수, 고밀도에 연사 등을 짜 맞춰서 새로운 코듀로이를 개발하고 있다. 그런데 이 공장에서는 레이디스 슈트(ladies' suits)나 하프 · 코트(half · coat)용의 새로운 코듀로이로서 경 · 위에 모두 보일사(voile yarn : 세번수로서 크레이프사보다는 꼬임이 적은 강연사)를 사용하여 제작하고, 마무리는 소프트 · 코듀로이의 일종으로 처리하여 직물의 중량은 가벼운 편은 아니지만, 옷을 만들어 입었을 때 가벼운 느낌을 받으며 윤기가 있어 “이것이 바로 코듀로이라는 느낌”을 받게 된다고 한다.

직물 규격은 경사에 초장면(超長綿)의 80수 쌍사 S꼬임 8올, 위사에 60수 쌍사 S꼬임 250올로 제작되었으며, 파일사를 커팅(cutting)하기 전의 림 · 스테이트(loam-state)에서 비단과 같은 윤기와 경량감(輕量感)이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. 이와 같은 특징을 살리기 위하여 파일사를 커팅하지 않은 것과 커팅한 것을 모두 상품화하고 있다. 이 소재는 03/04 추 · 동절용으로 개발하였으므로 앞으로의 제품화가 기대된다.